

‘달리는 예술車’ 벤츠 ‘마이바흐 오프 부아튀르 에디션’ 공개

S클래스 스페셜 한정판 모델 ‘S 680 4매틱’ 국내 20대 등 전 세계 150대
노틱 블루·라이트 로즈 골드 조화...부클레 패브릭 등 독보적 럭셔리 자랑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의 스페셜 한정판 모델이 나왔다. 전 세계에 150대 한정 모델로, 국내에서는 20대가 판매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오프 부아튀르에서 영감을 받은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의 스페셜 한정판 모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80 4매틱 오프 부아튀르 에디션’을 최근 서울웨이크아트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패션에서 영감을 받은 블루, 베이지, 로즈 골드, 골드 색상 조합의 고품질 부클레(boucle) 패브릭이 시트 커버, 도어 트림 등 인테리어 전반에 걸쳐 적용됐다. 리넨과 모헤어 소재의 하이 파일(high-pile) 플로어 매트도 적용돼 안락함을 더했다.

대시보드 하단과 도어, 헤드레스트 및 헤드라이너 등에는 라이트 그레이 색상의 삼각별 패턴 가죽 소재가 적용됐다. 삼페인 잔, 도어 패널, 대시보드, 센터 콘솔에는 로즈 골드 컬러가 적용돼 실내 공간의 품격을 높였다.

센터 콘솔에는 150대 한정 고유 넘버배지가 부착돼 특별함과 희소성을 더했다. 배지 번호가 새겨진 수제 기프트 박스와 모텔가 및 열쇠 고리, 마이바흐와 오프 부아튀르 로고가 돋보이는 특별한 차량 커버도 증정한다.

뒷좌석은 고정형 센터 콘솔을 기본 탑재해 휴식 및 사무에 편리하도록 구성됐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온도 조절식 더블 컵 홀더 등으로 구성된 일등석 뒷좌석 시트와 고품질 가죽으로 마감된 접이식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80 4매틱 오프 부아튀르 에디션과 내부(왼쪽) 모습.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테이블, 로즈골드 컬러의 삼페인 잔과 삼페인 병을 수납할 수 있는 냉장고까지 모두 갖췄다.

이외에도 목, 어깨 히팅 기능이 내장된 헤드레스트, 경사면에서도 뒷좌석 도어를 쉽고 편리하게 여닫도록 돕는 뒷좌석 컴포트 도어, 직사광선 보호는 물론 탑승객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해주는 선 프로텍션 패키지, 두께의 11.6인치 풀 HD 터치스크린과 7인치 태블릿이 탑재된 MBUX 하이엔드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이 적용됐다.

특히 총 1750W의 출력 및 31개의 스피커를 탑재한 부메스터 하이엔드 4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과 새로운 차원의 차량 내 오디오 경험을 선사하는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기술이 기본 탑재됐다.

오프 부아튀르 에디션은 V형 12기통 기술인 엔진(M279)과 9G-TRONIC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 630 마력, 최대 토크 91.7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에어매트 서스펜션은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을 통해 각 휠을 개별적으로 제어해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탁월한 승차감과 안정감을 제공, 외부 소음 및 적외선 차단에 도움을 주는 IR 라미네이티드 글래스와 흡음재 역할을 하는 저소음 타이어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GGM ‘전기차 생산 모드’로...내달 4일 가동 중단

12월 10일까지 생산 기반 구축
2024년 하반기 본격 양산 돌입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공장 가동을 멈춘다.

GGM은 30일 오후 ‘캐스퍼 EV 안전한 시설공사 착수 및 성공적 양산 결의 대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 GGM은 2024년 전기차 양산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모든 임직원이 완벽한 품질의 전기차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GGM은 안전 수칙 준수와 예방 활동 강화로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고, 시운전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성공적인 전기차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상생 안전 품질 등 3대 핵심 가치를 실현해 제2의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37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전기차 생산시설 기반 구축에 들어간다.

4일부터 27일까지는 전기차 시설물을 설치,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생산시설 연동 시 운전 및 보완을 끝낸다. 이후 12월 6일 차체 공장을 시작으로



‘캐스퍼 EV 안전한 시설공사 착수 및 성공적 양산 결의 대회’에서 GGM 직원들이 완벽한 품질의 전기차 생산 체계 구축을 다짐하고 있다. (GGM 제공)

도장 공장과 조립공장이 차례로 라인 가동 준비에 들어가는 등 전기차 생산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시험생산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방침이다.

GGM은 전기차 시설공사 과정에서 전기차 공사 분야별 법적 인허가와 이행 사항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가동 전 점검과 안전 검수를 무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공사 현장에 GGM 관리감독자는 물론 공사업체 안전 관리자 현장 상주와 함께 안전지킴

이 편성 운영 등 안전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 교육도 강화하는 등 무재해 공사를 실현할 방침이다.

GGM 관계자는 “일정대로 전기차 양산에 돌입하면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고 차종이 다양화되면서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2교대 인력 충원으로 대규모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생산 품질 원가 등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민 아빠차’ 기아 카니발 더 강해졌다

‘더 뉴 카니발’ 출시...3년만에 상품성 개선

기아의 대표 대형 RV 카니발이 더 세련되고, 더 강인해진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기아는 최근 ‘더 뉴 카니발 (사진)’의 외장 디자인을 최초 공개했다.

30일 기아에 따르면 더 뉴 카니발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 후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은 4세대 카니발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이다.

더 뉴 카니발은 기아의 브랜드 디자인 철학 ‘오피트 유나이티드’에 기반한 ‘현대적인 대담함’(Modern Boldness)을 콘셉트로 정제된 세련미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같은 강인함이 조화를 이룬 외관을 갖췄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전면부는 수직형상의 헤드램프와 ‘시그니처 스타맵 라이팅’ 주간 주행등(DRL)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했으며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강조된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웅장한 느낌을 준다.

여기에 단순하면서도 정제된 디자인의 범퍼와 날렵하게 다듬은 하단부 스키드 플레이트가 어우러져 세련되면서도 존재감 있는 전면부 디자인을 완성했다.

측면부는 수직형상의 헤드램프와 리어 콤비네이션램프가 직선의 캐릭터 라인을 따라 조화롭게 이어져 균형감이 느껴지며 새롭게 디자인된 알로이 휠을 적용해 단단하고 강인한 느낌을 강조했다.

후면부는 번호판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노출형 핸들을 얇게 넓고 깔끔한 테일게이트를 구현했으며, 좌우가 연결된 ‘스타맵 리어 콤비네이션램프’를 적용해 전면부와 통일감을 주면서 고급감을 더했다.

또 블랙 클래딩이 적용된 범퍼 하단부와 와이더한 스키드 플레이트의 조화를 통해 더욱 견고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디자인 특화 트림인 그래비티는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휠이 적용됐다. ▲루프랙 ▲C필러-테일게이트-도어 가니시 ▲전-후면 스키드 플레이트 등에 다크 메탈릭 색상을 적용해 강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화했다.

더 뉴 카니발은 신규 색상인 아이보리 실버를 비롯해 ▲스노우 화이트 펄 ▲아스트라 블루 ▲오로라 블랙 펄 ▲판테라 메탈 ▲세라믹 실버 등 6종의 외장 색상을 운영한다.

기아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더 뉴 카니발에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 총 3종의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카니발은 가족 단위 고객에게 특화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독보적 패밀리카의 위상을 오랫동안 지켜온 모델”이라며 “다음 달 사전 계약 시점에 맞춰 더 뉴 카니발의 상품성에 대한 상세 정보와 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기아, 미래 모빌리티 선도 위해 디자인 조직 개편

디자인센터→‘글로벌디자인본부’로 승격...글로벌디자인담당 신설 등

현대자동차·기아가 미래 디자인 역량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디자인 조직을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미래 전기자뿐만 아니라 PBV, 로보틱스, AAM 등을 포함한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기아는 각 브랜드별로 분리돼 있던 디자인센터를 하나로 모아 본부급인 ‘글로벌디자인본부’로 승격시켰다. 또 글로벌디자인본부 산하에 ▲현대제네시스글로벌디자인담당과 ▲기아글로벌디자인담당 등 2개의 담당 조직을 신설

했다.

이밖에 현대제네시스글로벌디자인담당 산하에는 ▲현대디자인센터 ▲제네시스디자인센터 등 브랜드별로 2개의 센터급 조직을 재편했다. 특히 기존 제네시스 브랜드 차종의 디자인을 전담했던 제네시스디자인실을 센터급인 제네시스디자인센터로 승격시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각 브랜드별 디자인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현대차는 ‘센슈어스 스포티니스’(Sensuous Sportiness, 감성을 더한 스포티함), 기아는 ‘오피트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 제네시스 브랜드는 ‘애슬레틱 엘

레강스’(Athletic Elegance, 역동적인 우아함)라는 디자인 방향성을 통해 차량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된 인사에서는 루크 돈커볼케(Luc Donckerwolke) 사장이 현대차·기아의 전체적 디자인 방향성을 총괄하는 글로벌디자인본부장으로서 CDO(최고 디자인 책임자)에 임명됐으며, 기존에 맡고 있던 CCO(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의 역할도 겸직하게 됐다.

또 기존 현대디자인센터장이었던 이상엽 부사장이 현대제네시스글로벌디자인담당으로, 기아글로벌디자인센터장이었던 카림 하비브(Karim Habib) 부사장이 기아글로벌디자인담당에 임명됐다. 이상엽 부사장과 카림 하비브 부사장은 각각 담당 브랜드별 미래 디자인 방향성 수립과 차별화를 수행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